

1천년 전 고려청자 빗길 재현 속도 낸다

〈강진~개성〉

강진군-국립 해양유물전시관 '재현 사업' MOU 체결

고려시대 '한선' 복원...내년 8월 출항, 3일후 개성 도착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자문화선 선원들에 대한 위령제도 지낼 예정이다.

전통 한선은 소나무 등으로 제작되며 행사 이후에는 강진청자박물관이 있는 대구면 앞바다 일대에서 청소년 항해교실 등에 사용된다.

강진 대구면 일대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500여년간 고려청자가 생산됐던 곳으로 현존하는 문화재급 청자의 85%가 이곳에서 제작됐다. 특히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만여 점의 청자는 강진에서 생산돼 개성으로 가던 중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군은 역사적인 빗길 재현 행사를 통해 남북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강진청자에 대한 국내외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자문화선 선원들에 대한 위령제도 지낼 예정이다.

군은 당시 청자를 실었던 길이 19~20m, 너비 10m 규모의 전통 한선(은누비호)을 고증과 설계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전통 한선은 계절풍이 순풍(順風)으로 바뀌는 내년 8월 초 청자 수백여점을 싣고 출항해 3일뒤 개성에 도착할 계획이다.

서해안 해로를 따라 가는 도중 1천년 전 충남



여수산단 소방훈련

여수산소방서(서장 강대중)는 26일 여수국가산단내 제일모직(주)과 화인케미칼(주)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민관 공동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량 15대와 소방공무원 및 직장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여수 소방서 제공)

“부실경영 책임 어민에 전가, 안된다”

‘완도군수협 살리기’ 범국민운동 확산

완도군수협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완도군수협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용일 변영희)는 지난 26일 완도군수협 수산물류 종합 유통센터 물량장에서 ‘완도군수협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영록(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용일 변영희 회장, 수협 조합원 및 직원, 완도군 사회단체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완도수협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어민들에게 부실경영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대표성이 없어지면 6만 군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지원 의지만 확고하면 회생이 가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완도수협 을지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수협 살리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부실경영을 이유로 완



완도군민 1천여명은 26일 ‘완도군 수협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도 수협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올해 안에 완도 관내 2개 수협(금일·소안)으로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완도군수협 대의원들은 지난 25일 수협중앙회를 방문, ‘완도군수협 계약이전 결사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2008년 예산운영’ 평가

완도 ‘최우수군’ 선정

완도군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08년 예산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10억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한 지방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완도군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성과 집행 실적, 사업 타당성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군은 인센티브로 받은 10억원의 상사업비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여수시내버스 노조 파업 결의

조합원 94% 파업 찬성...내달 1일부터 돌입 예정

여수시내버스 노조가 27일 파업을 결의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동운수와 동양교통, 여수여객 등 3개 시내버스 회사 조합원 288명은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해 94.1%(271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내달 1일경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0.6% 인상

과 현재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해 왔으나 회사측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관광 버스를 투입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해양 긴급전화 98% ‘민원·장난·오점속’

〈122〉

목포해경, 개통 이후 유효 신고 1.7% 그쳐

해양 긴급전화(122) 중 유효 신고는 100건에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122’ 개통 이후 전체 신고 전화 4만1천936건 가운데 해양사고나 오염 등과 관련된 유효신고는 727건으로 1.7%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전화중 무응답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고, 미연결 24%, 오점속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허위, 장난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력과 장비의 낭비는 물론 신속한 범죄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 긴급전화 ‘122’는 경찰청의 112,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해양의 긴급전화번호로 각종 해난사고, 해상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ish@

아름다운 남해안 화보에 담는다

남해안권 9개 지자체 내년 하반기 발간키로

전남도와 경남도, 여수시 등 남해안권 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화보집을 제작한다.

여수시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8·29일 이틀간 여수 디오센터에서 남해안권 화보집 제작과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화보집 제작에는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전남도와 경남도,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남해, 하동 등 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작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지자체별 예산분담에 대한 논의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 발간할 화보집은 해외 주요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박람회기구(BIE) 등에 배부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할인 판매

농협 목포유통센터, 내달 1일부터 10~30%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조성수)가 개장 5주년 기념과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는 고객에게 알뜰 쇼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고객감사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전면 개방,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축산물 및 선물세트에 10~30%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사과(5kg 기준), 배

(7.5kg 기준), 특산품, 전통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선물세트를 5세트 이상 다량 구매하는 고객에게 1세트를 추가 증정하고 전국 택배 서비스도 무료 제공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내달 21일 추첨을 실시해 290명에게 52인치 LED TV, 대형 냉장고, 호텔속박권, 한우 갈비, 식기세트, 영화 관람권 등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갖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항·포구에 CCTV 설치 합니다”

목포해경, 내달부터

목포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에 CCTV를 설치한다.

해경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되면 원거리 및 우범 항·포구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방범방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의 증거 채증이 쉬워져 치안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ish@



순천 ‘희망돼지 저금통’ 4천여개 개봉

순천시가 ‘희망돼지 저금통’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순천시는 희귀 난치병 어린이 및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배부했던 돼지저금통 4천여 개를 5개월 만에 회수해 지난 25일 개봉했다.〈사진〉

시는 오는 9월 5·6일 동천 수변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순천복지대축제 개막식 퍼포먼스에서 돼지 저금통 모금액을 기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농촌공 전남본부 ‘고객만족 사례 발표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26일 지역본부 4층 정보화교육장에서 본부와 지사, 영산강사업단 고객만족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경영’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회는 ‘고객만족경영’ 우수 사례 소개와 함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향상방안 ▲공사 고객만족경영과 사회공헌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송기동기자 song@

영광 범성항 매립지

내달 중순부터 분양

다음달 중순부터 영광군 범성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양이 시작된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범성항 인근 매립지 공사는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선분양 대상 면적은 전체 매립지 25만7천여㎡ 가운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11만8천여㎡다.

선분양 대상 부지는 상업, 공업, 준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공공용지에는 녹지와 공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영광군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선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매립지 조성으로 범성항 일대 상업 시설 현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성항 매립 사업은 범성면 진내리 일대 앞바다에 쌓인 퇴적물을 매립해 포화 상태에 이른 범성포 굴비상가 지구를 조성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3년부터 500억원을 들여 추진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남 945척 등 어선 감척사업 본격화

연안어선 내달 1일부터...근해어선은 10월 7일 확정

어업 구조조정과 수산자원 보전 등을 위해 배를 줄이는 감척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의 연안 어선 900척과 근해 어선 45척 등 945척이 다음달부터 감척되는 등 전국적으로 28개 업종, 3천959척(연안어선 3천500척 근해어선 459척) 정도가 줄어든다.

연안 어선은 이미 시·군별 감척 규모가 확정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근해 어선은 다음달 19일까지 각 시·도별로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농식품부가 자격 확인 및 어선·어구 잔존까지 평가 등을 거쳐 10월 7

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감척에 필요한 관련 예산 3천685억원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감척 어업인에게 폐업 지원금으로 최근 3년 평균 수익의 50%와 어선·어구 잔존까지 평가액 100%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감척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조업 기간이나 선령 기준 등의 자격 조건을 일부 완화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0월에 ‘건강·장수 100세 잔치’ 열린다

담양·곡성·구례·순창 등 ‘장수벨트’ 협약식 가져

담양군과 곡성군, 구례군, 전북 순창군으로 구성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지난 26일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건강·장수 100세 잔치’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철 담양군수, 조형래 곡성군수 등 4개 자치단체장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 한국방송플러스스 신동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단체별로 7천만원씩을 출연, 2억8천만원의 공동기금을 마련해 매년 건강장수 100세 잔치를 열기로 했으며 축제 프로그램 전략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한편 ‘제1회 건강·장수 100살 잔치’는 오는 10월 25·26일 이틀간 순창에서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